

6월은 호국보훈의 달

□ “호국보훈의 달” 제정

-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명칭으로 정해져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며 예우하기 위해 1961년 도에 설립된 군사원호청(1962년 원호처 승격)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되면 6월이 ‘호국의 달’로 지정돼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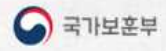
□ 잊지 못할 ‘6월의 그 날들’

- ① 6월 1일, “의병의 날”
- ② 6월 6일, “현충일”
- ③ 6월 25일, “6.25전쟁”
- ④ 6월 29일, “제2연평해전”

□ 6월, 울산 꼭 가볼 만한 곳

- ① 울산대공원 내 안보테마공원 “울산대공원 현충탑”
 - 참전기념탑, 무기 전시장, 훈련기 및 다목적 항공기 등
- ② 울산 남부 도서관 “외솔 최현배 선생 흉상”(독립운동 시설)
- ③ 선암호수공원 “6.25 참전기념비” (국가수호 관련 시설)
- ④ “보성학교 전시관” (울산 독립운동의 상징)
- ⑤ “신홍사” (울산 대표 호국사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울산 꼭 가볼 만한 곳]